



## 습근평,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원회의 참가 시 강조

# 사명담당 강화하고 개혁혁신 심화시키며 신흥 분야의 전략 능력 전면 제고시켜야

【북경 3월 7일발 신화통신】중공 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 군위 주석인 습근평은 7일 오후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의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원회의의 참석 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신흥 분야 전략 능력은 국가전략 시스템과 능력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우리 나라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관계되고 국가 안전과 군사투쟁 주동권에 관계되는바 이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 추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사명과 담당을 강화하고 개혁과 혁신을 심화시키며 신흥 분야의 전략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 3월 7일 오후,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은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의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중요 연설을 했다. / 신화사 기자 리강

회의에서 해군 대표 애영춘, 전략지원부대 대표 오승염, 남부작전구 대표 교사사, 전략지원부대 대표 하우범, 군사과학원 대표 요당내, 육군 대표 정금이 선후로 발언하여 해양 태세 감지능력 건설 추진, 인터넷 공간 방어능력 제고, 인공지능 응용 추진, 우주공간 자원 통합관리 사용 강화, 신흥 분야 표준 통용화 건설 강화, 무인자전능력 건설과 운용 혁신 등 분야 문제와 관련된 의견과 건의를 제출했다.

습근평은 모든 대표들의 발언을 참답게 청취하면서 수시로 그들과 교류했다. 6명 대표가 모두 발언한 후 습근평은 중요 연설을 발표, 신흥 분야의 전략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둘러싸고 요구를 제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전략성 신흥산업과 신형 작전력량의 발전을 일괄 추진하는 데서 일련의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20차 당대회 이후 당중앙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대국면으로부터 출발하여 신질생산력을 다그쳐 발전시킬 데 대해 명확히 제출했다. 이는 신흥 분야 전략 능력 건설에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기세를 몰아 신흥 분야 발전 특점과 법칙을

파악하고 신질생산력과 신질전투력의 효율 높은 융합과 쌍방향 견인을 추진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발전 중점을 뚜렷이 하고 신흥 분야 전략 능력 건설에 관한 전략과 계획 시달을 잘 틀어쥐어야 한다. 해상 군사투쟁 준비, 해양권의 수호, 해양경제 발전을 일괄 추진하고 해양 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우주항공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우리 나라 우주항공 시스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인터넷 공간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인터넷 안전 수호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지능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통합 실시를 강화하고 선진 성과 응용 강도를 심화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흥 분야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불

패 과학기술의 혁신과 응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혁신의 자신감을 증강하고 자기 위주를 견지하고 실제로 부터 출발해 자주혁신과 원시혁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신질생산력과 신질전투력의 성장극을 구축해야 한다. 신흥 분야의 교차융합 발전 특성을 틀어쥐고 집성혁신과 종합응용을 강화하여 다지점 돌파와 군체적 활성화의 생동한 국면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신흥 분야의 개혁을 개혁 전면 심화의 하나의 중점으로 간주하고 뚜렷이 부각시키며 자주자강, 개방융합, 활기찬 혁신생태를 구축하고 신흥 분야 전략 능력 건설을 한층 더 추진시켜야 한다. 수요 점목과 계획 점목, 자원 공유 등 면에서의 제도 기제를 건

전히 하고 보완하며 표준 통용화의 길을 잘 걸어 신흥 분야 발전의 전반적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신질전투력의 공급을 다그치는 것을 인솔로 국방과학기술 공업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국방과학기술 공업 배치를 최적화하며 선진기술의 민첩반응, 패속전환 기제를 건전히 하여 신흥 분야 발전에 적합한 혁신사슬과 산업사슬, 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한다. 사상관념을 갱신하고 신형 작전력량의 건설과 운영 모식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모색하여 신질전투력을 충분히 해방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군위 부주석인 장우협이 회의를 주재하고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군위 부주석인 하위동, 중앙군위 위원들인 류진립과 장승만이 회의에 참가했다.

## 길림대표단 매체개방일활동 거행

# 분투하는 길림의 독특한 매력 보여주고 진흥발전하는 시대 강음 전달

경준해 호옥정 기자 질문에 대답 파음조로 락수강 심의에 참가

3월 6일 오후, 길림대표단은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사업보고를 계속 심의했으며 회의 전반 과정을 보도 매체에 개방했다. 길림대표단 단장이며 성당위 서기이며 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인 경준해, 대표단 부단장이며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심의에 참가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파음조로와 락수강이 심의에 참가했다. 오후 3시, 《인민일보》와 신화사, 중앙라디오텔레비죤방송총국, 《광명일보》, 《경제일보》, 《중국일보》, 중신사, 봉황위성 TV, 로이더통신 등 국내외의 35개 보도매체들에서 온 49명 기자가 새시대 길림 전면 진흥에 대한 관심과 주목을 지니고 회의장에서 분투하는 길림의 독특한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길림 진흥발전의 시대 강음을 함께 경청했다.

심의에서 왕지후, 담전성, 장학군, 고산, 양효혜, 엽영홍, 김인강, 한봉향 대표가 선후로 발언하면서 인식과 체험을 교류하고 진흥 변화를 마음껏 이야기하며 발전대계를 강구했다. 이어 기자의 질문 순서로 들어갔다. 지난 한해 동안 길림성의 주요 경제지표의 성장 속도는 전국의 앞자리를 차지했으며 13년래 처음으로 인구의 순위급 추세가 나타나고 혁신능력 향상 폭이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경제와 사회의 고품질 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다. 이는 각별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전면 진흥의 술선 돌파를 추진함에 있어서 길림성은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했으며 어떤 새로운 하이라이트가 있고 어떤 좋은 추세가 나타났으며 올해는 또 어떤 새로운 포치와 배치가 있는가?”고 중앙라디오텔레비죤방송총국 기자가 먼저 경준해에게 질문했다.

경준해는 길림 진흥발전의 대한 광범한 보도매체 빛들의 관심과 지지, 방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해 9월, 동북진흥전략 실시 20주년의 중요한 시점에 습근평 총서기는 10번째로 직접 동북을 시찰하고 새시대 동북전면진흥추진 좌담회를 주재하고 중요 연설을 했는데 이는 새시대, 새 로정에 서 동북이 위풍을 다시 일으키고 좋은 성적을 다시 창조하는 전략적 방향, 업무적 향도, 실천적 지향을 명확히 가리켜주어 우리들이 더욱 높은 위치, 더욱 넓은 시야에서 길림 전면 진흥 사업을 계획하고 방향을 수립하게 했다. 전 성의 광범한 당원간부와 군중들은 총서기에게 무한히 감사하며 더 당중앙에 더없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관찰하는 것을 중대한 정치임무로 삼고 제때에 성당위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새시대 길림의 전면 진흥을 실천적으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할 데 대해 전략적 위치 확정, 전반적 계획, 체계성 포치를 진행하여 길림의 고품질 발전, 지속가능한 진흥의 새로운 길을 힘써 걸어왔다. 첫째, ‘진’(進)의 태세를 공고히 하고 상시화, 전방화(专班化), 기제화로 기업을 유지하며 자원을 모으고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 잠재력 방출을 다그치며 외자를 안정시키고 대외무역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으며 경제 운행의 지속적인 호전을 추진하였다. 둘째, ‘신’(新) 동력에너지를 육성하고 과학 기술혁신으로 신질생산력 발전을 선

도하며 대농업, 대장비, 대관광, 빅데이터 ‘4대 집군’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신강양(康养), 신서비스, 신전자상거래 ‘6신산업’을 발전시키며 신기초건설, 신환경, 신생활, 신소비 ‘4신사실’을 건설하고 길림의 특색 우세를 갖춘 현대화 산업체계를 서둘러 구축했다. 셋째, ‘운’(穩)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대농업관, 대식물관, 대산업관을 확고히 수립하며 현대화 대농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 식량안전을 안정적으로 수호하는 중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농업의 기초적 지위를 끊임없이 튼튼히 구축했다. 넷째, ‘방’(放)의 잠재력을 불러일으키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깊이 융합하며 전방위적인 맞춤형 협력, 다차원 전략협력, 긴밀형 전문협력, 전방성 공동건설 협력, 개방성 국제협력 ‘5개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개방협력 고지를 적극 건설했다. 다섯째, ‘인’(人)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구 인재 정책을 지속적으로 교체, 업그레이드하며 ‘깊이인구’ 공정, ‘창입분투’는 바로 길림에서 행동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인구의 전반적인 자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여섯째, ‘호’(好) 생활을 창조하고 정성을 다해 민생과 실제적인 일을 힘써 잘 처리하여 인민의 삶의 질을 끊임없이 높였다. 일곱째, ‘활’(活)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5급 서기가 경영환경을 틀어쥐고 사상해방, 개혁심화, 개방포용, 개방과 활성화를 견지하며 ‘풍부하고 다채로운’ 아름다운 길림을 건설했다. 여덟째, ‘안’(安)의 최저선을 지키고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총체적인 국가안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가의 ‘5대 안전’을 수호하는 사업체계를 보완하여 중대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했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올해는 새 중국 창건 75돛이 되는 해이며 길림의 전면 진흥이 술선적으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추동하는 관건적인 해이다. 길림성은 이번 전국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동북 시찰, 길림 시찰 시의 중요 연설과 중요 지시 정신을 시달하는 것과 긴밀히 결부시켜 목표를 놓치지 않고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과감히 뛰어들고 과감히 일하고 실재적으로 일하여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의 전면 진흥을 위해 배치한 웅대한 청사진을 서둘러 현실로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발전 구상을 재차 최적화하고 ‘방’(放)과 ‘활’(活) 두편의 큰 문장을 착실하게 잘 지어 길림 특색을 띤 고품질 발전체계, 고품질 생활체계, 높은 수준의 안전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전환, 승급에 재차 초점을 맞추어 더욱 선진적인 생산력의 질적 상태(质态)로 더욱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룰 것이다. 체제와 기제를 다시 활성화하여 더욱 큰 강도로 시장과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자원을 배치하며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개방협력력을 촉진하며 중앙기업의 재배치, 민영기업의 대발전, 외자의 빠른 류입을 추진할 것이다. 실행을 보장하는 데서 다시 힘을 발휘하고 ‘략착을 단단히 틀어쥐는 해’ 활동을 착실하게 전개하며 임무 목록화, 업무 도표화, 조작 매뉴얼화, 표준 템플릿화(模板化), 전반 기제화 ‘5화’ 패환사업법을 잘 활용하여 습근평 총서기의 모든 중요 한 지시 요구가 길림대지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확보할 것이다.

## 길림대표단 전체회의의 소집

# 강소대표단 심의에 참가하여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 전달 학습

## 경준해 주재 연설 호옥정 전달

3월 6일 오전, 길림대표단은 전체회의를 열고 습근평 총서기가 강소대표단 심의에 참가하여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하고 학습했다. 길림대표단 단장이며 성당위 서기이며 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인 경준해가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다. 대표단 부단장이며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전달했다. 장광권, 파음조로, 락수강이 회의에 참석했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은 현지 실정에 따른 신질생산력 발전에 관한 일련의 새로운 관점, 새로운 료단과 새로운 요구를 제출하고 고품질 발전을 뉘받침하는 새로운 생산력 리론체계를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켰다. 연설은 높이가 있고 사상이 심원하며 내포가 풍부하며 현대화 건설의 법칙에 대한 깊은 파악과 심원한 통찰력을 충분히 구현했으며 습근평 경제사상의 중대한 독창적인 공헌으로서 전국 사업에 매우 강한 지도적 의의를 갖는다. 우리는 반드시 깊이 학습

하고 터득하고 관철하며 길림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과 긴밀히 결부해 관찰과략을 참답게 틀어쥐어서 신질생산력의 발전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고품질 발전이라는 새시대의 큰 도리를 단단히 파악하고 ‘혁신’이라는 특점에 초점을 맞추며 ‘품질 우수’라는 관건을 틀어쥐고 ‘선진생산력’이라는 본질을 파악하며 먼저 세우고 후에 보완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분류 지도를 견지하여 길림의 특색, 우세를 가진 신질생산력 발전을 다그치고 고품질 발전과 지속가능한 진흥을 인도하고 버팀목이 되도록 하여 새시대 길림의 전면 진흥이 술선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첫째, 강한 혁신과 산업 육성을 견지하고 ‘1주 6쌍’ 고품질 발전전략, ‘4대 집군’ 육성, ‘6신산업’ 발전, ‘4신사실’ 건설 등 중점 임무 실시를 둘러싸고 과

학기술혁신으로 산업혁신을 추진하고 전통산업의 고급화, 스마트화, 녹색화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중점산업의 선도적 우세를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 한다. 신질산업 발전을 다그치고 미래 성장 엔진을 적극 구축하며 신질생산력 발전 요구에 부합되고 길림의 특색, 우세를 지닌 현대화 산업 시스템을 형성하여 신질생산력 발전의 구조적 돌파를 실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개혁, 우수한 환경 틀어쥐는 것을 견지하고 과학기술, 교육, 인재 등 분야의 체계 개혁을 힘써 추진하며 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공평 경쟁, 사회 신용 등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계 건설을 다그치고 신질생산력 발전의 기초적 버팀목을 힘써 다져나가야 한다. 셋째, 대외진출, 련동추진을 견지하고 경진기와의 협동발전, 장강경제벨트 발전, 장강삼각주 통합발전, 율항오대만구 건설, 서부 대

개발 등 국가 중요 전략과의 도킹을 더욱 강화하며 동북 3성 1구의 지역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우리 성 각시, 주의 착위 발전, 복위 발전, 진위 발전(错位发展, 错位发展, 错位发展)을 인도하여 신질생산력 발전의 협동적 추진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넷째, 신심 강화를 견지하고 의욕을 제고하며 주제교육 성과를 더욱 공고히 확대하며 ‘개방’과 ‘활성화’라는 2개의 큰 문장을 지속적으로 잘 쓰고 ‘략착을 단단히 틀어쥐는 해’ 활동을 잘 조직하고 전개하며 광범한 간부들이 새로운 발전 리념과 정확한 정치업적관을 튼튼히 수립하도록 하고 발전 과정에서 민생복지를 효과적으로 증진하며 공동 부유를 촉진하고 안전과 안정의 최저선을 지키며 신질생산력 발전의 내생동력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부단장들인 채동, 고팡빈, 가효동이 회의에 참석했다. / 길림일보